

지저스타임즈 신년하례 및 3사와 MOU체결

미.LA크리스천헤럴드, 세계녹색기후기구기독청과 업무제휴 협약 맺어

대망의 2016년 새해를 맞아 세계 선교 영역확장을 위한 신년하례가 사예배가 지난 29일 오전 11시 인천 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4, 영광교회(조강수 목사시무) 대 성전에서 전국에 많은 이사, 지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사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세계녹색기후기구 기독청 대표 강요셉 목사를 접견하고 양사가 본사와의 업무제휴를 위한 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어 미국 LA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이사장 양준호 목사)사와 본사가 업무제휴 약정서에 서명날인 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준호 이사장을 대리하여 한국특파원 간수웅 목사가 서명했다. 이로써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JTNTV 인터넷방송은 크리스천헤럴드사와 세계녹색기후기구기독청 등 3사의 MOU체결로 인해 세계 선교영역확장에 큰 비전을 갖게 됐다.

아울러 미국 크리스천헤럴드 신문은 창간 39년, 라디오방송 22년, 채널 CH18.88TV방송 개국은 5개월째 되었으며, 이사장 양준호 목사, 사장 김창호 목사는 두 언론사가 힘을 모으면 더 훌륭한 콘텐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며



기원했다.

이날 본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꾸미우리 기독무용단의 찬양무용과 영광교회의 웬시바 찬양단은 "사랑의 열매" (김규환 작사 / 김규환 작곡) 특별찬양으로 영혼 깊은 속까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박수영 목사(대구지사장)의 기도,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봉헌찬양에 꾸미우리기독무용단,

안산지사장 백운성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다.

이어 특별기도에는 1) 신문사(본사와 지사)를 위하여! 이흥희 목사(지문/상임이사), 2) 문서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박양우 목사(중부지사장), 3) 업무제휴를 약정한 LA 크리스천 헤럴드와 세계녹색기후기구 기독청을 위하여! 강요셉 목사(부이사장/상임회장), 4) 국가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정대성 목사(부이사장/부

총재), 5) 장소를 제공한 영광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김창룡 목사(상임이사/상임회장) 등이 기도한 후 지문 박한규 목사(한경총 고문)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이사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는 새해를 맞아 고급 선물세트를 참석한 이사, 지사장, 임직원, 성도들에게 증정하고, 성도들의 정성 어린 준비로 마련한 국수로 애찬을 나누었으며, 세계녹색기후기구 기독청 대표 강요셉 목사는 고급타월 100점을 참석한 전원에게 선물하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한편 세계녹색기후기구기독청 대표 강요셉 목사는 지저스타임즈(주간) JTNTV방송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를 세계녹색기후기구기독청 부총장으로 추대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세계녹색기후기구 기독청 대표 강요셉 목사를 본사 부이사장 및 언론부흥사회의 부총재 이흥희 목사를 본사 및 언론부흥 자문으로 위촉하고, 송정숙 목사를 본사 문화부 취재부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2월 정기모임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하나님이다자인교회 (김창룡 목사)에서 오는 26일(금) 오전 11시 10-2차 본사 및 언론부흥 이사회로 모임을 갖는다.

헤럴드 초대석

송택규 목사

예수님 마음은 부모마음



주필 송택규 박사 미 헤럴드 초대석

한국의 기독교신문 지저스 타임즈의 주필이며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부총장인 철학박사 송택규 목사를 본사에서 만났다. 송목사는 언론인답게 기사를 만나자마자 고언어로 말문을 열었다. 송 목사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는 "신문은, 특히 기독교 신문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독자들을 이끌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은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 마음은 부모마음 같은 것으로 비판할 줄 알아야 참 언론"이라며 언론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소신을 내놓았다.

동네 할아버지같이 친근한 인상의 송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천천히 들려 주었다. 정치에 꿈을 가졌던 청년시절, 공화당 중앙위원회 운영위원(전국에 36명)으로도 활동했었으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40

여 년 전, 심장판막증을 앓던 막내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성경을 선물해 주었다고 한다. "그 분은 '이 책을 읽으면 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었고, 딸을 살릴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력을 다해 진심으로 성경을 읽었고, 그 후 막내딸은 회복되어 돌아왔다. 그 딸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내 옆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송 목사의 얼굴에 성령을 향한 강한 믿음이 피었다. 그 당시 신앙전서를 선물 받았는데, 신약을 읽기 시작하며 믿음이 일기 시작했고 책상을 칠만큼 강한 깨달음도 왔다고 한다.

그 후에도 사모의 뇌종양 수술과 송 목사 본인의 반신 마비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성령을 믿겠다는 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송 목사는 지금도

찬송 361장을 부르고 묵상하며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바치리라'는 결심을 새롭게 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도 미 후 신학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송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신학생들의 차이에 대해, 한국 신학생들은 철저히 학문에 전념하는 반면 이곳 미국의 신학생들은 생업을 병행하고 있어 선교적 사명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표 저서로 개신교 구원 문제를 다룬 <성막 영성>이 있다.

송 목사는 "성막 안에는 예배, 믿음,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는 진정한 성막인 예수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학교에서 성막영성과 신약학, 실천 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여가를 수석과 본재를 돌보며 보낸다는 송 목사의 뒷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이성숙 미 헤럴드방송 편집장>



▲조은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O.C 정로회 임원들과 이교회 민승배 목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자립교회를 위한 박재란 권사 초청 간증 집회

미자립교회를 위한 박재란 권사 초청 간증 집회, 1960년대 '산 넘어 남촌에는' 등 경쾌한 히트송을 불러 유명했던 박재란 권사가 지금은 '노래하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찬양 간증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박 권사가 미자립교회 지원 사

역을 하고 있다. 박 권사 초청을 원하는 교회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714-234-1631 헤럴드 제공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2016년 2월~3월 집회일정

영광교회 축복대성회에 초청합니다

● 2월1일(월)~2월 4일(목) 청주금식수양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1길 43
원장 : 백효선 목사(010-5736-3004) ☎ 043-269-5211

● 2월15일(월)~2월18일(목) 주안함께하는교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261 금호빌딩
전화: 032-867-0536

● 2월 21일(주일저녁)~2월 24일(수) 용인상갈소망교회

● 3월7일(월)~3월 9일(수) 사랑의교회

● 3월14일(월)~3월 16일(수) 남인천교회
주소: 남동구 남구 도화동 601-1 동아 아파트

● 3월20일(주일저녁)~23일(수) 목포꿈의교회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 전화:061-277-0498

● 3월25일(금) 세종평화의동산
주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중말길 161(내산리 573-1)
전화: 041-852-2211

● 3월28일(월)~30일(수) 인천찬양교회

♥매주 금요일 성령 대성회(금요일) 밤 11시부터...
초대교회의 성령과 치료의 역사로 이 땅에 신선한 성령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성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매주 주일저녁축복예배(주일) 오후 6시30분부터
한국교회의 저녁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은혜가 넘치는 영광교회 주일저녁 찬양과 말씀축복이 넘치는 예배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매주 (토) PM 6:00 토요일찬양예배
청년이 일어나 예수를 말하리
대상 : 청소년 청년



강사 조강수 목사

언론부흥사회의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유병철)는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유병철)는 3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인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하여 결손가정 자녀 보호시설인 ‘오류마을’ 및 ‘에델마을’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내 인근지역의 독거노인가정 3곳을 방문하여 위문금 전달과 청소 등 봉사활동에 힘써왔다.

서울남부구치소는 매년 명절기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행사는 매서운 한파속에서 난방조차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회복지시설인 ‘에델마을’ 김미숙 원장은 “매년 결손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해주시는 서울남부구치소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많은 결손가정 자녀들이

울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매월 결손가정 자녀 4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가정 등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 딸을 엽기적 살인 방치한 목사 ‘정통교단’ 소속

독일 유학 후 S신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개척교회 담임이었다

딸을 폭행 숨지게 한 뒤, 방에 11개월 동안 미라 상태로 방치해 두어 훼손된 채 발견되었기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살인사건이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3일 폭행치사 혐의로 이모(당시 13세)양의 아버지인 목사 이모봉(49)씨와 계모 백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이양을 2012년부터 맡아 기르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백씨의 여동생(39·새 이모)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모봉씨는 “당일 딸에게 가출 이유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가한 뒤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며 “같은 날 오후 7시쯤 일어나서 보니 딸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딸의 시신을 방에 방치한 이유를 “기도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또한 딸이 부활할 것을 믿어서 딸의 시신을 방 안에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이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덮어 11개월간 방치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양의 가출 신고를 접수한 뒤 이씨를 3차례 정도 만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씨가 계속 ‘내 직장인 학교로 오라’고 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모봉씨는 부천 소재 서울신학대 출신이며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H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활동했으며, 모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철학자를 펴낸 정도로 촉망받는 신학자로 알려졌다.

그는 전처가 사망한 뒤 2009년 12월 자신이 겸임교수로 있는 신학대의 평생교육원을 다니던 백씨를 만나 결혼했으며 백씨는 초혼이다. 하지만 백씨가 자녀와 갈등을 빚으면서 가정이 붕괴됐고, 막내딸 이양은 백씨의 여동생 집으로 보내고, 이씨와 백씨 부부만 살았다. 이양의 오빠와 언니는 동생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목사는 밖에선 다정한 아버지로 행세하는 등 두 얼굴을 가진자로 목회와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프로필에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는 두 딸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경찰은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목사 이모봉씨를 현장 검증에서 들어났듯이 딸을 감금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11개월 동안 이불속에 덮어 방치한 혐의로 아동학대와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수감시켰다.

평화원 여민 소명자 대회 열어

장애우들의 삶의 터전인 평화원(황영숙 원장)은 지난 2월 2일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146에서 여민 소명자 대회를 개최했다. 평화원은 김라익 목사와 사모 황영숙 원장

이 섬김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원은 “섬김으로 운영되는 장애우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날 칸타빌레 찬양단과 장애우들과의 어우러진 찬양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으며, 따라서 찬양단의 리더 김유향 전도사의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기에 장애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어를 배우고 있다.

천안지사 류기형 기자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개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러이집 [02-464-3107]

인천시기독교협의회(인기협) 창립취지

인천광역시에는 약 3,500여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인천광역시에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할 수 있는 대표적 연합단체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많은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연합단체를 결성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창립을 준비하고 3월초에 창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회의 뜻에 동참코자 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 문자를 주시면 발기인 임회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

건전한 교단에 소속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 장로

(참고사항)

- 본회는 정치적 단체가 아닌 목회자 및 교회들의 친목, 정보교환 및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 가입서를 제출하였어도 실행위원회 또는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가입을 허락합니다(진성회원 중심으로 운영).
- (각 구 협의회는 본회 산하 구구협의회로 별도조직)

인천시기독교협의회(인기협)

(연락처)창립준비위원장 010-5525-8182

(사무국)인천시 남구 인주대로337(주안동,삼영빌딩4층)

863-4014 (팩스)863-9014 (이메일) kps8182@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한국예측성정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쪼아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후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녀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2016년도 전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회지도자전문과정 입학안내

★ 특전

- 총장명의 증서
- 장학혜택(성적 및 공로자)
- 연세총신 신대원 2년과정으로 인정함
- 연세총신과 연세교육후 연세총회에서 목사안수함

★ 입학안내

- 모집기간 / 2016년 1월 ~ 3월
- 개강일 / 2016년 3월 10일(목) 오전 10시(주안) 오후 5시 30분(야간)
- 교육대상 / 평신도지도자반 : 세례교인 이상
교역자반 :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사모)
- 교육시간 / 주간 : 매주 목 (오전10:00-오후4:00)
야간 : 매주 목 (오후5:00-오후9:00)

★ 교육비용 / 45만원

★ 등록안내 / 국민은행 220401-04-015162 (예금주/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교수진 / 김영목 총장의 과목별 유명 전문강사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2매,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장소 / 인천분원 (학기2회/본교에서 강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3-3(진영빌딩2층)
(인천시청후문, 인천시청 지하철3번출구 20미터)

★ 접수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지원팀
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151-1
인천분원/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83-3(진영빌딩2층)

★ 문의처 / 교학지원팀 : 031-770-7822~3
팩스) 031-770-7828
분원사무국 : 070-7518-0651, 010-3641-068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한교연, 서부전선 최전방 25사단 상승부대 위문 및 신병교육대 장병 3백명에 진중세례식 거행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2월 13일(토)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보병 25사단 상승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신병교육대 사랑의교회에서 장병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거행했다.

최근 남북간의 안보 위기와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군위문행사와 진중세례식은 한교연 선교위원회(위원장 허상봉 목사) 주관으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공동회장 등 임원, 상임위원장, 직원, 동대전선결교회

성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등 위문단은 오전 11시 제25사단 본부를 방문, 사단장에게 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사단본부 회의실에서 작전 참모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가진 후 사단장과 장교, 병사들을 위해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방문단은 사병식당에서 일명 '군대리아' 햄버거로 점심을 들고 바로 상승비통부대 철책선 GP로 이동, 전방대를 참관하고 경계 근무중인 병사들을 격려했으며, 남

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신병교육대 내 사랑의교회에서 신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중세례식 예배가 거행되었다. 세례식은 군종참모 김순규 목사의 집례로 김효종 목사(예장 호헌 총회장)의 기도와 동대전선결교회 찬양단의 특송, 허상봉 목사(한교연 선교위원장)의 설교에 이어 김진신 목사(바른신앙교육원장)와 이태운 목사(작은교회살리기위원장)가 국가안보와 장병들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인사를 맡아 진행했으며, 입대후 처음예수를 믿기로 자인 서약한 장병 300여 명에 대한 세례예식이 거행됐다. 이날 세례식은 김윤기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선교위원회 허상봉 목사는 “담대하라” 제하의 설교를 통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전하면서 “모든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병 여러분과 두고 온 가족들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일래 대표회장도 인사말에서 본인의 군생활을 회고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간다”면서 “아무나 오고 싶다고 올 수 없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군대에 여러분은 건강한 대한의 아들이기에 선택 받아 온 것”이라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군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교연 선교위원회는 세례를 받은 장병들에게 포켓용 신약 성경과 십자가 팔찌, 핸드크림, 휴대용 랜턴, 십자가백지, 군번 고무막, 때밀이 수건 등 장병 선물세트 5백개를 선물로 나눠주었으며, 예배에 참석한 장병 모두에게 롯데리아 햄버거와 콜라를 나눠주며 고단한 군 훈련 기간중에 작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한기보 신임대표회장에 지왕철 목사 당선

성경보수원형회복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과

한국교회의 무너진 주체, 정체성 회복운동에 주력하겠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 대표회장 이법성 목사)는 지난 2월 1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90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 기념관에서 제3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지왕철 목사가 앞도적인 지지를 받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정기총회에 앞서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한홍교 목사(예장.호헌 총회장)의 기도, 박종열 목사(예장.예신 총무)가 성경봉독(롬 8:26~30절)을,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탁원숙 목사 외 10명이 특송을 한 후 법인이사 김 암 목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황요셉 목사(예장.연합총회장)가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광영민 목사(예장.예측총회장)는 ‘한국교회와 합의회(총회.단체)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렸다. 아울러 법인이사 이창희 목사가 헌금기도를, 대표회장 이법성 목사는 신임교단장에게 축하와 전달과 인사말씀을 전하고, 사



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와 성경 대표회장 남성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한기보 제31차 총선의 결과는 총대 35명 중 기권 8표, 기호 1번 박동호 목사 8표, 기호2번 지왕철 목사 19표로 당선이 확정된 지왕철 목사가 신임대표회장에 선출되었다. 대표회장 지 목사는 “기쁨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지 여러분의 내게 힘이 되어달라”고 했다.

따라서 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주체인 정체성이 무너졌다면서 한국교회 보수를 지향하는 중진

지도자들과 언론이 함께 W.C.C 체결 운동의 불씨를 붙여 왔던 그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가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추구해온 성경보수원형회복운동에 무게를 두고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왕철 대표회장은 동지 여러분이 저의 힘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기에 저와 함께 다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작은 불씨 하나를 붙여 나가자면서 동지 여러분이 열심히 같이 뛰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로 소감을 밝혔다.

한기총 제21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취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1대 대표회장으로 이영훈 목사가 취임했다.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총회대의원의 만장일치로 기립 박수 속에 추대되었다. 취임 감사예배는 2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증경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명예회장 이태희 목사가 기도했고, 총무 엄진웅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때가 요구하는 지도자”(마태복음 28장 16-20절)라는 제목으로 명예회장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영훈 목사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라 상황이 암흑과 같고 답이 없는 가운데, 이 목사의 책임이 크다”며 “일제와 6.25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를 이끌어 준 정신적 지도력은 언제나 교회에서 왔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해도,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온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가슴에 품고 희망의 지도력을 발휘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의 약력 소개 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의 영

적 지도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겠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축난을 청와대 박강섭 중무비서관이 전달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중덕 장관(대독 나종민 중무실장)은 축사를 전했다.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대표),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조일래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근삼 대한성공회 주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경철 CTS기독교TV 회장, 류영모 CBS 이사장,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김명진 GoodTV 사장, 김명규 C채널 회장, 이재훈 CGNTV 이사장은 축하영상으로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경찰관(희생자 및 부상자) 자녀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장학금은 취임 감사예배 장소를 호텔에서 변경하여 겸손하게 함으로서 그 절약비용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예배는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의 광고와 증경대표회장 김자연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공동회장 이태근 목사의 오찬기도에 이어 케익커팅과 기념촬영이 있었다.

영적리더, 청년을 만나다

성령한국네트워크 HOST2016

청년 신앙 고민 나누는 소통의 장 만들기

HOST2016은 오는 2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대성리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전국청년영성수련회, <브레이크(Break)>를 개최한다.

HOST2016(Holy Spirit Network)은 2013년 한국감리교회가 주관했던 '1903하디성령한국대회 - 청년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2015년 초교파적 청년부흥집회를 이끌어온 청년예배운동으로, 서울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를 주축으로,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를 기대하며 시작한 복음적 청년 네트워킹이다. 올해 봄(4.5.6월) 전국 순회집회와 여름(8월) 2016성령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청년수련회는 그 첫 번째 행사로, '당신만이 나의 길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청년들의 영성회복을 위한 '말씀 집회'와 다양한 '선택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며,

청년 문제를 고민해 온 영적 리더들과의 '영성토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성토크' 프로그램에는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담임), 김학중 목사(꿈의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그리고 한국여성상담센터의 신지영 센터장이 출연해 크리스천 청년들과 이야기한다. 미리 취합한 청년들의 고민은 물론, 현장 질문도 직접 받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토크에 참여하는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담임)는 “영성토크를 통해 많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서로 위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유롭지만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운 목사(만나교회 청년담당)와 이승호 목사(꿈의교회 청년담당), 양승훈 목사(비채교회 담임), 정진 코치(연합교청센터)가 복음적인 삶을 위한 세분화된 선택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소완 목사(광림교회 청년담당)와 이용천 목사(둔산성광교회 담임)가 각각 26일과 27일 저녁 집회 BREAK의 말씀을 전한다.

2월 초부터 공식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광림교회 및 지역교회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 및 참가신청 02) 514-887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보수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

총 회장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경 남 신 학 원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0-168
H.P 010-5325-3893

| 기 고 |

우리 총회(합동)는 정치가 실종되었다

작금의 총회사무국 발신번호로 발송한 운영이사회 소집은 거짓과 불법으로 소집한 것이며, 총회결의를 방지하여 불참하는 운영이사 소속노회의 총대권을 제한하겠다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협박장치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회가 운영이사 소집의 근거라며 발송한 문자를 살펴보면, 「총회규칙 제13조(파송이사임기) 본회가 각 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정관에 의하되 ① 본회의 소환결의가 있거나, 제14조(승인권)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를 근거로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총회규칙 13조 ①항은 “파송이사 소환결의”입니다. 이것과 100총회결의 ③항의 “운영이사회 임원 교체”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엉뚱한 조항을 짜 맞추기 한 것입니다. 파송이사를 소환 결의한 바가 없는 100회기 총회장이 무슨 권한으로 운영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총회장은 총회규칙 제14조에 산하 기관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의 “총회”는 어떤 총회입니까? 14조는 산하기관의 조직 보고는 차기 총회(101회 총회)에 보고하는 조항입니다. 규칙은 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100총회 결의로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했다고 해서 총회장이 법과 규칙을 전혀 무시하고 정권을 행사하며 산하기관 조직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에서 운영이사를 선출하도록 지시했다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운영이사장을 선출합니까? 어떤 선거규정을 근거로 어떤 절차로 후보를 심사했다는 겁니까? 지구상에 그런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100총회결의를 명분으로 선관위를 통한 운영이사회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은 모두 선관위가 불법에 이용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선관위가 스스로 총회규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불법에 포함된 현 선관위원은 그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100회 결의는 “전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겨 처리”라는 이 부분을 총회장은 전권



주진만 목사

총신대학교 운영이사
관서노회장
호산나장로교회

위임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맡겨 처리하되”란 뜻은 헌법과 규칙 안에서 그 결의정신을 살려 잘 처리하도록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위법인 총회결의로 상위법인 총회규칙과 선거규정을 잠재하고 위법을 행하며 운영이사장을 규칙에 따른 절차없이 발표하면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이는 다른이인 오직 총신대학교 장악을 위한 교권의 횡포입니다.

총회 결의 정신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위법과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총회가 승인하여 사용 중인 “운영이사회 규칙”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총회결의로 상위법인 규칙을 잠재한 것도 부족하여 소집권자가 아닌 총회장이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였으니 이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위법인 총회 결의가 상위법인 총회규칙, 선거규정, 운영이사회 규칙 위에 존재하여 법을 잠재한다는 것입니까?

총회장이 정관과 규칙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정관과 규칙에 정한 개정 절차도 아닐 뿐만 아니라, 100회 총회는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을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당시 동영상과 사진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총회 임원 특히 회록서기는 거짓으로 회의를 변조하였고, 임원회가 이 거짓된 회록을 불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총신대 장악을 위한 첫단계로 운영이사회 물갈이 전략입니다.

100회 총회장은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화합시키는 고도의 정치 조정의 자리인데, 오히려 총회장이 정치로 풀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막장 정치, 밀어부치기 정치, 협박정치, 줄서기 정치, 불법정치로 교단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총회지도자가 개혁이란 명분으로 총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니 이러한 정치 실종이 현 총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총회가 제시한 정관과 규칙은 앞뒤가 맞지 않게 급조하여 발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운영이사회 규칙 5조에는 4년 단임으로 개정하였으나, 8조 2항의 운영이사장은 운영이사 7년 이상 역임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회파송 운영이사를 총회장이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총회장 입맛에 따라 운영이사회를 구성하여 재단이사 선출을 통가시키려는 것입니다. 2조에는 총회가 운영이사회를 거수기로 사용하려는 듯, “지시에 불응하는 재단이사나 운영이사를 총회가 직할치리로 제명한다”고 했습니다. 6조 1항에는 파송이사는 노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파송이사를 총회가 심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파송운영이사 교체와 총대권 제한으로 노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직 총회장이 매년 그 권력으로 운영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총회권력을 잡는 자는 언제든지 운영이사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혁입니까? 야욕입니까? 다른 산하 단체도 총회장 입맛대로 마음껏 주무르도록 동일하게 정관과 규정을 고쳐서 적용해야 할까요?

이와같이 총회장이 일방적인 교권 횡포로 운영이사를 거수기로 사용하여 재단이사회와 총신대학교를 장악하려 한다면 전국노회의 강력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00회 총회장은 화합 총회장인줄 알았더니 오히려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 총회를 어지럽히니 이제 우리 총회는 누구를 위한 총회입니까? 총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꾀들의 정치 놀이터가 되었고, 부패와 비리, 패거리정치로부터 개혁되고 정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절망 그 자체입니다.

총회가 거룩함과 자랑스런 총회로 회복되지 않고, 거짓과 편법을 자행한다면 전국의 흩어진 “침묵의 불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며, 그 불법과 위법에 저항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이재 의원 ‘국회 굿판 어처구니없는 해명’

‘굿판 아닌 전통품물놀이이라며 무책임한 변명만’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제2회 2016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 굿판 논란에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에게 책임질 것을 압박한 가운데 이이재 국회의원의 측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굿판이 없다는 해명에 의문이 든다. 역술인협회 측은 제사음식이 반입이 안 돼 굿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굿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굿이 아닌 품물놀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앞서 한국역술인협회(협회장 백운산)는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소회의실에서 ‘제2회 2016년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를 진행한 언론매체에 의해 국회 굿판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이날 굿판은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맡고 있는 이이재 의원이 주선하고 새누리당 김주호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역술인과 도인, 무속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계는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는 무속행위”라며 강력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기독교계의 요구에 따라 해당 굿판을 주선한 이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지라는 식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변인은 3일 오전 당 최고종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이재 의원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며 “해명이든 사과든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과 한국역술인협회는 4일 오후 1시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판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당초 주최 측에서 새누리당 전 종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 국운 토론회에 따른 대관요청을 했으며, 단순한 학술 토론회 성격으로 장소 제공만 해준 것일 뿐, 행사를 주선하지도, 주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전문화행사로 진행하려던 국운응성기원 재수굿에 대해서도 이 의원실과 사전 협의한 적이 없었다”며 “실제로 식전행사인 재수굿은 이이재 의원실과 국회사무처 승인이 없었기에 바로 취소했고, 따라서 굿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역술인 협회측 또한 해당 행사에서 굿이 진행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식전행사인 재수굿은 이이재 의원실과 국회사무처 승인이 없었기에 바로 취소했고, 굿과는 상관없는 우리 전통문화행

사인 품물놀이 공연으로 대체했다”며 굿판아닌 전통 공연으로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사실을 집중취재한 JTBC에 따르면 역술인협회는 “당초 상차림 음식에 반입이 안돼 굿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한 바 없다. 제사상 음식이 없어 굿이 아닌 해명이다.

이이재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번 당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주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윤광식 기자

교정, 경목 상비부서 상견례 및 세미나 열어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총회장 허 식 목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신총회 강단에서 지난 25일 오전 11시~13시까지 대신총회 전국 교정, 경찰목사 위로 행사순서에 일함으로 교정, 경목 상비부서 상견례를 가진 후 부장 홍창표 목사를 강사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부장 홍창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총무 신한식 목사가 기도, 홍성익 목사가 성경봉독(미 7:14절)하고, 한경총 협동총무 박용숙 목사의 찬양에 이



어 증경총회장/경찰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최현기 목사는 “주님의 의도로서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국가안전과 대통령, 총회교계를 위하여 임원 이해우 목사, 교정, 법무부장관, 경찰선교 경찰청장과 직원들을 위하여 한경총회회장 김창룡 목사의 특별기도가 있는 후 증경총회장 최현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2부 순서로 ‘상견례를 갖고 교정, 경목 선교 비전 2020 세미나’를 개최되어 감사로 나선 홍창표 목사는 경찰 위촉 목사. 승려, 신부 운영세직에 관해서 또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관서 위촉 목사, 승려, 신부 운영 규칙에 대해 교제를 통해 강의했다. 감사 홍창표 목사는 강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한국 경목총회 홈페이지(www.gapck.or.kr)에 들어가 경찰청, 경목회의 연혁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www.gapck.or.kr)에 들어가 경찰청, 경목회의 연혁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WGCA)는 비엔나 협약(조약 제 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기본협약(조약 제 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기구 헌법을 이행 실천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및 한미 FTA 제 18장 8조 및 무한 에너지(미국특허법 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 1항2호)를 바탕으로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을 허가 받아 수탁,등기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창조경제녹색기술상품’을 전파하고 실천함으로써 전세계 환경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실천 이행 국제기구입니다.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은 유일하게 본 국제기구 헌법에 세계 선교와 복음전파와 세계360개국에 교회를 세우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나라든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기독청입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계기독청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대한민국과 피지에 거주하는 국제기구 설립 집행부 및 이사회는 이사간의 5차례의 합동 회의를 통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라고 명명되는 국제 비정부기구(INGO)입니다. 세계녹색기후기구 피지가 기후변화의 피해국가 중 하나이고 피지의 현재 수상이 유엔소속 130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되는 정부간 최대 기구인 G-77의 의장으로 내정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인지함으로써 피지내와 G-77 ▲지역 조동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강정원 목사와 조미자 목사 일부국가에 헌법허가수탁 등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INGO-WGCA/INGO-WGCA/W-GCA/(세계녹색기후기구-국제기구글로벌본부/운영본부/행정본부/72지원기구 행정본부/선물상품 행정본부)는 지적재산권자 또는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통해 지적재산권 사용 승인을 받아 그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차특허/이차특허를 개발하고 이 특허들을 포함하는 녹색기술의 전파와 녹색기술 상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유엔 산하 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된 국제표준 녹색기술 모두와 지적재산권 활용한 일, 이차 특허로 개발된 녹색기술상품 모든 제품은 전세계 국가에 수소에너지, 에어엔진 형태의 탄소배출이 없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미래연구, 개발, 생산 및 배포를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설립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규모 감소,
2. 이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를 보존하고 더욱 녹색적이며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3. 전 세계 대중 및 다음 세대에게 혜택,
4.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생산과 사용 가능
5. 고용 창출과 빈곤의 감소
6. 에너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구제 경쟁 경감,
7. 국가 간의 평화와 조화 추구,
8. 전세계 모든 곳에서 군사 무기 또는 군비의 생산에 사용불가,
9. 인간의 진보에 대한 평화적 목적,
10. 무한 에너지, 에어엔진, 녹색기술실천, 수소에너지 등 실천,



강 요 셴 목사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대표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본부 지원의장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감찰수사본부장
복받은순복음교회 담임목사
010-7582-3927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프라임센터 20층(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널 앞(강변역(2호선))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세계기독청 전화:070-4281-0010

서울구로구청 교구협의회 신년조찬기도회 가져

화합과 배려, 소통으로 살맛나고 행복한 구로가 되길 기원

서울구로구청 교구협의회(대표 회장 박재욱 목사)는 지난 18일 (월) 오전 7시 30분 본청 신청사 7층 식당에서 많은 목회자들, 지역 국회의원들,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구로구민과 구청을 위한 신년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진행위원장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의 진행으로 예배가 시작되어 대 회총무 김정만 목사가 기도, 신 우회장 이영숙 집사가 엽 3:14~21절을 봉독하고, 구로지역연교한 양대의 찬양에 이어 예정개혁총회 증경총회장 박 용 목사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용 목사는 말씀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려고 먼저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시야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즉 의뢰는 신뢰이며 믿음이며, 순종의 문제이며 행함의 문제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총만함이 우리의 성품, 삶, 태도와 말해주신 오케스트라와 같은 구로구청 위에 넘치도록 찬양하게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회장 박재욱 목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온 강일례 권사, 최정자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어진 신년인사에서 박 대표회장은 “2016년은 재능과 지혜를 주는 해에 구로구에 속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따라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

하는 신년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구로구민과 구청기관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종파를 초월해서 화합과 배려로써 소통하는 우리지역 구로, 살맛나는 구로, 행복한 구로가 되자며 기원했다.

이어서 공동회장 이 성 구청장의 신년사를 전하고, 구로갑 이인영 의원, 구로를 문헌일 당협위원장, 서울청경목실장 고재동 목사 등이 축사했다.

이날 2부 특별기도에는 1. 대통령과 구로구청장을 위하여 사무국장 이상용 목사, 2. 2016년 구로구청 신우회와 전직원 영성을 찾기 위하여 자문위원 이강석 장로, 3. 한국교회 및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 및 북한동포를 위하여 자문위원 김태수 국장, 4. 소외된 이웃과 독거노인, 소녀 가정을 위하여 부회계 최영목 목사 등이 각각 기도했다. 아울러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의 광고 및 내빈소개가 있은 후 대표회장 박재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새벽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열어 참석한 노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또, 한국민을 대표해 노병들에게 거수경례를 올리고, 미국이 위대해야 동북아에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 노병들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기도 했다. 소 목사는 미국과 엘에이 카운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시상식 후 참석자들은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서 만찬을 나눈 후 우정을 나누고 아쉬움 속에 행사를 마쳤다.

미, 크리스천 헤럴드

소강석 목사, LA 시로부터 감사훈장 받아

Count of Los Angeles State of California RESOLUTION

한국전 참전용사 위로 공로

지난 1월 19일, 엘에이 시청에서는 이민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시상식이 있었다. 그동안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온 소강석 목사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엘에이 시로부터 최고 품위에 해당하는 감사훈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 당시 참전장 병들과 그 가족들이 초청되어 소 목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새에덴교



회 담임 소강석 목사는 이 일을 7년째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소

목사의 활동은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우호를 다지는 데도 크게 기

예장(합동개혁) 2016년 신년하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합동개혁)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5소재 기공빌딩 5층 합동총회신학 신대원 대에배실에서 2016년 신년하례식예배를 드렸다.

서기 정수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부총회장 김루터 목사의

기도, 부총회장 최정숙 목사가 성경봉독을, 총장 오광민 목사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전총회 목사(총동문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총회장 윤선동 목사는 신년사에 이어 축도로 마쳤다.

천안지사 류기형 기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7일 JJ 그랜드호텔에서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경숙 회장)전 숙명여대 총장 초청 동포 간담회가 열렸다. 2월 7일 (주) 오후5시 JJ 그랜드호텔에서 이태형 남가주지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하고, 손수웅 장로(남가주지회 회장)가 환영사를 했다. 이태형 사무총장이 “남가주 지회가 설립된 200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유지발전해 왔다”며 발자취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환영사를 맡은 남가주지회 회장 손수웅 장로는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최초로 여성 회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손 장로는 또 “혼란이 난무하고 있는 때라서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도로 새로운 국면이 창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개 받고 등단한 이경숙 총장은 인사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요 꿈인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용사 후원자가 스무 분이 있는데 서른 분으로 늘렸다. 오는 3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청년 기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중앙 이경숙 회장전 숙명여대 총장

도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 기도를 마치고 성인들의 기도회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성인들이 기도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주일을 잘 섬기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차세대 일꾼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통성 기도 순서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각각 뜨거운 기도를 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재용 목사(남가주교회 수석 부회장) *국민 화합과 경제 번영: 강지원 목사

(여성목사회 회장) *소년과 미래과제: 신동국 장로(남가주지회 부회장)

이어서 백지영 목사는 권면 순서에서 “우리 조국은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서 함께 모여 기도 합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발전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면하면서 비성경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 현실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 축복의 대로를 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유로운 친교의 시간이 있었다.

미, 헤럴드사 제공

3개 단체연합, 신년하례회 연합예배



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 명철한 자에게는 한미디의 꾸지람이 우둔한 자를 백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같이, 약으로 갚는 것은 재앙이 되며 분별력 없음이 미워하심을 받을을 기억하며 다름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나라”라는 본문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는 분별력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개방 개혁 없이는 도리어 스스로 파괴해서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로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급변 한해는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환 목사, “3개 단체인 사단법인 한기협, 세교연, 한개협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 임정태 목사,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등이 특별기도했다. 아울러 3개 단체장의 인사말씀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목사가 전하고 광고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연합예배를 성대하게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및 임원 명단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발행인)



박경민 목사 (예복부흥사협 대표회장)



박한규 목사



황원찬 목사 (예장대신총회장)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정한국 목사 (주시광교회)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강요섭 목사 (세기청대표)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박에스터 목사 (국제금식기도원 원장)



이병성 목사 (한기보 직전 대표회장)



허식 목사 (경목총회 총회장)



박양우 목사 (중부지사장)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박동훈 목사 (대신총회 부총회장)



홍형표 목사 (경목총회 사무총장)



박동호 목사 (별빛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교회)



박용숙 목사 (주성광각제인교회)



임해숙 목사 (수원행복마을교회)



이기학 목사 (모함아름다운교회)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박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이상중 목사 (새롬진교회)



이기웅 목사 (영광제일교회)



노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장)



김형룡 목사 (하나님미디어인교회)



김상익 목사 (신풍교회)



김창기 목사



조영남 목사 (시온교회)



배문자 목사 (그리스심교회)



김부경 목사 (갈보리교회)



회계 유은옥 목사 (조예교정교회)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교회)



한사라 목사



김창숙 교수 (구미우리교회)



백은성 목사 (안산지사장)



배정호 목사 (믿음교회)



지저스타임즈 & CJTNTV방송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사무실 032)574-6574

팩 스 : 032)578-8712

대표이사 : 010-5468-6574

이 사 장 : 조강수 목사

사 장 : 소진우 목사

대표이사 : 정기남 목사

사무국장 : 박경민 목사

· 요한계시록 2장 강해(15)

첫사랑을 저버린 에베소교회의 책망

금촛대 교회의 첫사랑의 회복은 예언의 말씀 깨달아야!

〈지난호 이어서...〉

금촛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이와 같은 진리로 충만하며 그에 따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의해 모든 것을 인내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금촛대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대단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서 그들을 내쫓아버린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러한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아주 고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 전체를 암송합니다. 또 사랑이 넘쳐흐르고 기도도 매우 잘 합니다. 여기에 백발백중 다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사랑 교회를 금촛대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국내의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말씀만 증거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도 성령에 의해서 광장히 예민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말씀 증거도 하고,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현장에서 거짓 영·대적하는 영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손을 쓰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선교 떠나기 전부터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가 거짓 종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거짓 영으로 역사하는 잘못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교입니다.

금촛대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 종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서 암 덩어리를 말끔히 제거하듯 잘라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암 덩어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작은 암 덩어리에 의해서 전체가 전염되고 맙니다. 그대로 놔두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선교현장에서 무엇이든지 좋게 좋게 끝내고, 누구든지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

다.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말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다. 왜냐하면 원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선악을 구별 못하는 악한 신 자들에 대해서는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고 진리로 서기를 바라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종들을 감싸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드러내서 깨끗이 정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암 덩어리를 꺼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으나 한 가지 책망하셨습니다. 금촛대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계속 나가다가 결국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금촛대 교회이기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교회가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책망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계 2·3장의 책망 받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로, 책망 없는 스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온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실제로 라오디케아 교회에 책망하였고, 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징계·책망·연단이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해당되므로 책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금촛대 교회의 첫사랑을 알기 이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금촛대 교회의 첫사랑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첫째부활의 영광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엄청난 복된 역사를 깨닫고 감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첫째부활의 영광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임을 영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말씀으로 확신되어지니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촛대 교회의 첫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은 신랑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해 본 첫사랑을 뛰어넘는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녹아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추가 다른 데로 옮겨진 것입니다. 2절의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된 종들을 시험하여 다 드러낸 것, 6절의 니골라당과 타협하지 않고 각을 세워서 미워한 것 등은 잘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에 열중하고 신경 쓰면서 그의 중심이 옆길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하얀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솟감영이나 불타가 하얀 옷에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 사랑을 받은 그대로 그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계속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인해 7년 대환란이 너무 기대되고 그 날에 순교하게 해 주실 것을 기쁘게 사모했던 뜨거움이 연젠가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을 감격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혹시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하여 환청이 들릴 정도의 사모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깨우쳐 회개하고 회복하라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러한 금촛대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일”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6:28 이하에서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니까?” 하고 주님께 여쭙보았습니

다. 주님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마리아도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였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이 좋은 일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눅 10:38-42).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깨우쳐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던 일, 즉 무엇을 믿느냐? 환란 날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다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불편해 하거나 미밋하게 재림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이 첫사랑에서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종들을 면면히 볼 때, 그들의 특별한 사역과 삶이 있었습니다.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한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입니다. 우리가 노아같이 100여년 걸쳐서 엄청난 배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순교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로운 제물이라고 일컬을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순교의 의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런 일입니까? 또 순교의 의로운 제물이 되어 지면 그 후에 특별한 관세까지 주셔서 환란 날에 사역을 하게 하실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감격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버리고 이렇게 이루실 주님을 그저 미밋하게 사랑한 것이 첫사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은 지옥 보낸대거나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금촛대 교회의 금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네 촛대”는 내 자신을 밝혀주는 촛대입니다. 그 촛대를 옮기면 내 자신이 캄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한 걸음도 내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주신 은사, 영감역사, 은혜의 역사를 걸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금촛대 교회 사자에게서 은사, 영감역사, 은혜의 역사 등이 소멸되어지면 큰일인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쳐진 니골라오

6절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본문의 니골라파를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 엉뚱한 사람을 니골라에 상징하여 중심 주제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니골라파는 사도 행전 6장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행 6:5의 일곱 집사 중에 니콜라오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방송 www.jtntv.kr에서 장한국 목사의 방송된 영기가있습니다.

목사코너(56)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요1서 1:1-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이는 요 1:1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와 같습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로 “was”란 과거 동사로 표현했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Ev á pññ ñv ó lógos 라 하여 ñv (헨)이란 동사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완료시제 동사입니다. 즉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게 될 것임을 가리키지요. 피조물은 모두 과거시점에서 만들어진 시작이 있었던 존재로서 모두 영어로 ‘was’이지 헬라어 ‘헨’이란 미완료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분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지다, 즉 과거 영원 전부터 계시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경험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존재되심을 말한 것이지요. λόγος 인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독생자를 가리킵니다. 요 1:18에 아무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 목하여 살렸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분이라, 즉 생명의 말씀을 친히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그 품 안에 기대어 누웠었고, 그분의 손에 잡혀 품람에 빠지지 않았고, 그의 못 박혔던 손, 창 자국 난 허리도 친히 만져봤지요. 요 1:39-40 최초의 주님 두 제자가 주를 직접 가서 보고 믿고

함께 거하며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도 하였지요.

‘그 생명이 나타나시니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다.’ 존재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λόγος는 분명히 친히 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요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지요. 독생자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발하여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생명을 알게도 하시고 더욱 생명을 충만케도 해 주심을 가리켜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골 3:3-4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 우리의 생명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이는 우리 생명이 곧 주 재림 시 입게 될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 영광이란 말씀이지요. 또 이를 생명의 눈으로 보고 믿은 우리가 그 생명을 증거하게도 될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다 했지요. 먼저 태초의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그 계명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지요. 그런 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받고 주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다가 다 순교하였지요.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니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준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진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최순길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기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매일 밤 10시 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로 엄인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3

살아있는 신앙, 영성이란 무엇인가?

〈지난호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본 영성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덴동산을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인간은 죽고 껍데기인 혼적 인간이 되고 말았다. 사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그들 혼 속에 마귀의 속성을 넣어 주었고, 이후 그들의 후손인 인간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마귀의 악한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던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죄를 대속케 함으로써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종교, 기독교이다. 즉 기독교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회복시켜 구원시키는, 에덴동산 회복의 종교이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강림 사건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시키려 오신 성령님의 공식적인 행사였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던 인간들을 구원해서 타락하기 전처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실존이 덧입혀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 성령이 충만하여 천국생활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기독교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피하여 변절하거나, 사막이나 동굴, 또는 사람들이 없는 오지로 숨어들어 가게 되었다. 후에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수도원을 탄생케 한 계기가 되었다.

5세기경에 이르러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사들에 의해 ‘영성’이란 단어가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때 이미 영성의 의미가 변질되어 있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선물을 사람이 노력하여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수도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톨릭 수도원의 영성운동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관상’과 ‘기도의 삶’과 ‘고행’을 통하여 이어져왔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영성의 정의는 ‘자아 초월적인 능력 있는 삶’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고행 속에서 경건(Piety), 헌신(Devotion), 거룩(Holiness)의 영성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다.

15세기말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이루기까지 기독교는 말씀 중심과 영성의 실존적 하나님이라는 핵심적 사상을 내어 버리고,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인본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계몽주의 문화 혁명은 봉건주의 사상을 깨뜨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나 전통적 기독교사상에 부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결과로 지성의 가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지성주의 사상이 들어와 인본주의가 관을 치면서 영성이 배제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지성에 두고 이론적 하나님, 이 세상과 상관없이 저 세상 너머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세에는 신비의 영역에 갇힌 영성운동이 일어났고, 17세기에 들어서 개신교에서는 지성과 교리 중심의 말씀운동에 치우쳐서, 영성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게 되었고, 쉐라리에르마흐에 이르른 신학이 보편적 종교성에 기초한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되

었으며, 이후에는 심리학과 심령과학을 접목시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 20세기 초에 나타난 오순절 운동은 초자연적 은사를 강조하여 비실제적인 신비적 영성을 추구하게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교회들까지 세속화되어 기복주의, 물질 지상주의, 성공주의를 하나님의 축복이요,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오순절 교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위 메가처치(Mega-Church)라고 불리는 초대형교회는 새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공통처럼 커진 게 결코 아니다. 중소기업들을 멸망시키며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재벌 기업처럼, 몇몇 초대형교회들은 주위의 소형교회들을 위협하고 오히려, 그곳에 다니던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유도, 제 몸 불리기밖에는 관심이 없다.

교인들은 사실과 인적 자원이 열악한 작은 교회보다는 온갖 현대적인 시설과 교육적 자원이 풍성한 초대형교회를 찾아가게 됨으로, 작은 교회들은 결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다. 몇몇 대형교회들만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빈’식의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끝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

‘영성이 없는’ 말씀만을 강조해 오던 기독교가 점점 무기력증에 빠져 이제는 종이 호랑이요, 무기력한 허상에 불과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까지 받게 되었다. 목회자들도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므로 영권이 없어졌다. 그러니 교회의 권위가 있을 리 없다. 말씀은 풍성하여 머리는 커졌는데 신경이 끊어졌으니 식물인간처럼 되어 교회들은 공동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기독교는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수많은 성경공부와 갖가지 명목의 프로그램으로 조직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한계에 이르게 되고 급기야는 종교 다원주의운동으로 변저하게 되었다.

그래서 타종교와 연합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아 명상, 긍정적 사고, 요가, 최면술, 선불교의 영성 등 영적 간음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12)

2.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 / 예수그리스도의 영성

신약시대의 진정한 영적부흥과 사경회는 예수그리스도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형식화 되어가고 외식화 되어 가는 종교인들을 깨우쳐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가난한자와 병든자를 살리는 운동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운동을 실행하고 삼일 만에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 체계적으로 확립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을 성실히 검토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의 교훈에 대한 새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세의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곡해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활이 왜곡됨에 대하여 예수는 불



홍항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꽃같은 책망을 거듭하였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설교와 삶을 통해 그리고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야 할 원리들을 가르치셨고 참부흥운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오순절 성령운동

교회시대의 영성운동에 있어서는 ‘오순절성령운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오순절성령운동’이란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도 불건을 서로통용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영적부흥운동’이다.

예수의 11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의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가깝모이는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예를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행1:12-14; 2:1-4). 이때 베드로의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 전형적인교회 부흥운동과 사경회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삼천명 오천명의 수직증가도 찾아 볼 수 있다.

제2장 사도영성운동의 성경적 기초

오순절의 영성운동은 성령의 강림으로 놀라운 확산과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그들이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의 입재의 체험이었고, 둘째 그들이 성령의 지배아래 한 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는 것(행4:32), 셋째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사랑의 실천행동으로 유무상통하였다는 점 넷째는 방언으로 언어의 장벽까지도 철폐되었다는 점, 다섯째는 전도 열이 고조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는 점이다(행2:42, 47; 4:1-12).

〈다음호에 계속〉

신 사도행전시리즈-1

도시선교 전략 – “음지에 빛을 비추라”!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준행하는 거룩한 행진이다”. 이 거룩한 행진은 방향이 중요하다. 20세기 선교전략이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열매를 거두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찾아서 각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교회들의 협력과 선교의 열정은 “10/40 창”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였다.

이제 지구촌 어떤 곳에도 선교사들이 다 파송되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21세기는 우리나라가 선교의 거룩한 불을 들고 달려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받았다. 우리의 선교전략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할까? 올바른 선교전략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많은 열매를 거둔다. 세상은 급변하며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의식도 급변하며 그 싸이클이 짧아졌다. 연령별 선호도와 취향 개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지안인신교회 담임
Destiny Christian University of Korea 학장
치유와 회복선교회 대표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 극단적이며 개인주의가 분명해졌다.

또한 과학의 발달은 매스미디어의 위력을 가공할 위력을 창출해 내고 있다. 실로 이제는 지구가 더 좁아져 순간에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공존하는 시대이다. 과거와 같이 사람이 달려가서 무언가를 전하는 시대는 지나가버렸다. 과거 선교현장은 미개척지의 삶의 오지를 찾았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인간의 양심이 메말라 버린 비정한 도시를 바라 보아야한다. 문화적체제의 변화와 문화, 인종이 공존하는 도시는 치열한 영적전쟁의 현장이요 선교의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지금 지구의 모든 나라의 심장은 도시이며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핵은 도시로 집중되고 사람들 역시 삶의 해답을 아니 곤고한 삶의 해결책을 도시에서 찾고자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어느 나라는 농촌은 인구가 소멸되고 특히 젊은 세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 대는 도시에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농촌과 도시를 비교할 때 농촌이 빈곤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하겠지만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시의 빈곤은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재앙과 같은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기용 목사

영광제일교회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오종설 목사

홍성제일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상중 목사

새용진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박민국 목사

새생명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담임 임해숙 목사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웅숙 목사 (우송초)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축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 송두현 박성현
장립집사: 강정구, 황규형

공덕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담임 박원근 목사

두란노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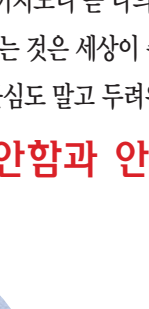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저희들 기도하고 싶어요 학교에 기도실 만들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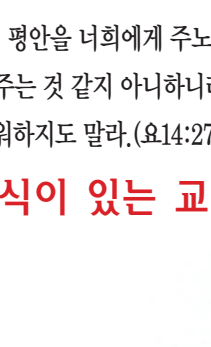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7)

표어 :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장 승 현**
REV. Jang Sung Hyun



· 협동목사: 김제홍

· 전도사: 허삼성

성가대

· 대장: 윤철호 집사

· 지도: 장성진 선생

· 반주: 강다연 자매

예 / 배 / 시 / 간 / 안 /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수요예배	수, 오후 7:30
금요철야 예배	오후 9시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중·고등부	토요일 오전 9시
성가대/청년회	주일오후 2: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2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화로 62-5(봉곡리 55-6)
Tel. 교회 : (041)356-0644
 E-mail: sunghyun732@hanmail.net 홈페이지 <http://pyeong-an.com>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2016년 신년하례감사예배 드려



예장합동 보수총회(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해 지난 7일 오후 1시30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지역 동천교회에서 “주의 은혜의 해”(눅4:19)라는 주제로 신년하례감사예배를 드렸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동천교회당에서 총회서기 임상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가 기

도를, 성경봉독(눅4:16~19절) 예회목서기 서재식 목사가,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근심에 문제, 질병에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하



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순종이 앞장 서야하고, 때를 기다리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고 했다.

또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의 끈을 놓

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강조하고 2016년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길 기원했다.

이어 회계 송인섭 장로가 헌금 기도를, 총무 조영만 목사가 광고를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축도로 2016년 신년하례감사예배를 마쳤다.

부서기 주지광 목사의 인도로 2부 특별기도 순서에서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국태 목사(한중, 증경노회장), 2.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김영국 목사(호남노회장), 3.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김상대 목사(회의록부서기), 4. 전국 노회와 전국 교회를 위하여 박용순 목사(서인, 증경노회장), 김주현 목사(서경노회장), 동천교회를 위하여 객유신 목사(경남노회장), JTNTV News 지저스타임즈 문서선교를 위하여 합심기도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한편 예장 합동보수는 부부동반으로 5월 넷째 주간 제주도에서 하계수련회를 갖는다고 발표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가 준비한 기념품을 전국에서 부부동반하여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사모에게 증정했다.

장한국 총회장 고별설교로 신년하례 마쳐 당분간 독 노회로 남겠으며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장한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는 지난 11일(월) 낮 11시 서울시 종로구대학로 3길 한국 100주년 기념관 411호에서 2016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가졌으며,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건강상 더 이상 총회장직을 감당할 수 없어 부총회장 조재호 목사를 중심으로 총회를 이끌어 달라며 총회장직을 이 시간부로 내려놓는다는 폭탄선언을 한 후 자리를 뒀다. 이어 회계 박민규 목사도 회계장부를 넘기고 자리를 떠났다.

고, 윤 관 목사(증경총회장)의 초청으로 장한국 목사는 노회원과 함께 개혁총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단 시비로 인해 개혁총회 총회원들과 노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장 목사에 대한 모든 서류감사 및 설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단이 아님을 검증받아 정식 가입하게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제2부총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장한국 목사와 노회원은 총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제2부총회장으로 제직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직전총회장 김정열 목사 체제하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총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앞도적인 지지를 받고 총회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계획을 구상한 가운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와서 이미 이단이 아님을 검증받은 장 총회장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며 조 부총회장과 임 총무, 김 직전 총회장 등이 협박을 가해 왔으며, 조용히 총회장에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

이들은 외부의 음해에 휘말려서 이러한 작태를 불러일으킨 꼴이 되었다.

장 총회장은 원치 않았던 총회장직을 투표까지 하면서 수락해 달라는 강정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직전 총회장과 임원들 일부는 현 총회장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말했다. 도대체 이들이 장로교단의 헌법과 규칙조항을 알거나 한 것일까? 한국 교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한국 목사는 이단이 아님을 검증받은 이후 목회에 전념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등 선교활동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장로교 헌법과 규칙은 무시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는 무고한 장 총회장을 결국 개혁총회에서 떠나게 한 것이다.

장한국 목사는 조용히 목회에만 전념하면서 독노회를 부흥시키고 활성화한 후 어느 시점에 가서 때가 이르른 뜻을 같이할 총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도 모자라 민족의 명절인 설에 장거리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쏘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의 자리로 불러내려 노력해왔다. 이런 평화적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지뢰 테러 등 끊임없이 호전적 도발을 일삼다가

위기가 닥치면 타협에 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상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도발을 강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적 기준과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현 정부가 추구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논평〉

남북관계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철수시키기로 한 조치는 북의 거듭된 안보 위협

에 대한 최후의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의 상징 사

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런 의미 있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평화 통일을 바라는 7천만 민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핵무기와 미사일로 협박하는 북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돈줄로 변모한 개성공단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 정부도 점차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결단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번만큼은 그 어떤 회색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북이 스스로

전쟁광적 호전성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역대 정부만을 믿고 개성공단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한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성명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북한이 남북화해교류협력 및 남북경제 협력의 목적으로 세워진 개성공단을 북한 주민의 삶과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

지 않고, 오히려 북한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군수물자 및 핵, 미사일 만을 개발해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의 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및 심층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 재와 고압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와 더불어 개성공단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2. 정부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를 위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가적 제재를 이행하라.

3. 국제사회가 통과시킨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러한 경제적 고립과 제재를 넘어서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차원 높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새신자/성도에게 **선물용**으로 최고!!

한국교회 최고의 베스트셀러!

〈초교파용〉 (전도, 새가족, 성경공부 등 명품 성도로 세워주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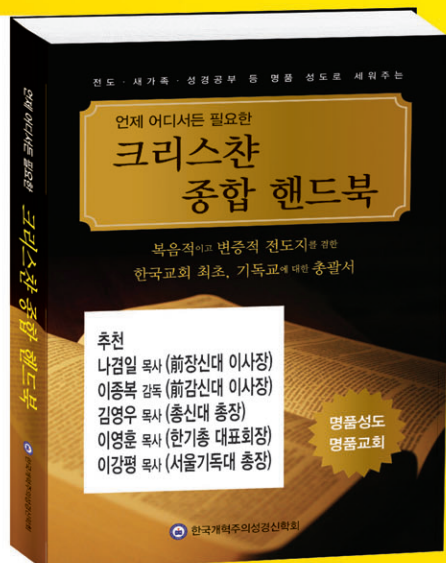
크리스찬 종합 핸드북

복음적이고 변증적 전도지를 겸한
한국교회 최초, 기독교에 대한 총괄서

-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그림 전도지
- 종교란 무엇인가?
- 신은 존재하는가?
- 기독교는 참 종교인가?
- 기독교(교회)에 대한 총괄 안내서
- 복음의 핵심 요약
- 성도를 위한 성경 상식 핵심 요약
-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실제 안내
- 가정, 사회생활, 교회를 세워줌
- 정통 교단(교회)과 이단 사이비 분별 법 (정통교단 현황 및 교단 로고)
- 종합적인 전도의 요령 및 실제
- 이단 대처법 (이단 신천지 및 안상홍하나님교회 대처법)

소책자 전도지 안내(28p)

- 논리적, 변증적인 한국교회 최고의 전도지.
- 50부 이상은 50%할인 (1,000부 이상은 개교회명 인쇄해드림)
※ 전도지는 서점에 없습니다. 직접 출판사로 주문해야 합니다 (10권 이상만 주문가능)



₩10,000



전도지 ₩2,000

■ 구입문의: 전국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및 유명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사)한국개혁주의성경신학회

☎ 010-5525-8182(책자, 전도지 단체주문)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높은 곳에서
성경: 시편 18편 33절 찬송가 312장

사슴은 민첩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적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높은 곳이란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난 후에 얻은 존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본 구절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된 상태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에게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목: 가르침을 받아
성경: 시편 18편 34절 찬송가 461장

본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단련시켜 싸움하기에 적합한 자로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거룩한 용사로서 모든 전술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써 사는 자의 마땅한 도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영적인 터치가 내 삶에 있을 때 이를 경히 여기지 말고 달게 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당당한 자녀로 거듭납시다.

제목: 방패와 손
성경: 시편 18편 35절 찬송가 567장

주의 구원하는 방패로써 다윗은 대적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권능에 사로잡혀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치 아니하는 것은 주의 구원하는 방패가 나를 호위하시고 권능의 손이 나를 안위한다고 믿는다면 결코 나의 삶 가운데 쓰러 질 순 있지만 다시 일어날 용기와 합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목: 넓고 튼튼하게 하실 이
성경: 시편 18편 36절 찬송가 499장

넓게 하셨다는 말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는 다윗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동시에 그의 입지가 견고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주실 분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분이시니 전능자이심을 굳게 믿으며 그 전능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공급의 원천
성경: 시편 18편 37절 찬송가 243장

이제는 대적들의 여러식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다윗의 그칠 줄 모르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우물이나 샘의 근원이 아주 깊게 솟아나 그 주변이 물로 항상 가득찬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덮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경: 시편 18편 38-39절 찬송가 92장

본 구절은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부각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한 가지 한다 했을 때 끝장 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해보다 말고 포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원수를 내 발 아래 엎드려 굴복시킬 그 고지까지 끝까지 진득하게 하는 신앙의 오기와 긍지가 있는 여러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 결국에는
성경: 시편 18편 40절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원수들을 도망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기서 원수들의

도망침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자신이 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여러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단 한번
성경: 시편 18편 41절 찬송가 260장

원수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이 다소 이상하게 보이나 저들은 위급한때에 여호와 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릇된 동기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 한 곡의 찬양,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마지막 때
성경: 시편 18편 42절 찬송가 338장

티끌이나 진흙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비참할 정도로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 다해서 심판이 안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하면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날 의인으로 기쁨의 날이 될 우리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제목: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성경: 시편 18편 43절 찬송가 449장

이 구절은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방 나라를 정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종주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나라의 대항하여 맞서 싸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패배 근성은 버리고 이기는 신앙의 오기를 가집시다.

제목: 복음들고
성경: 시편 18편 44절 찬송가 430장

이는 다윗과 정면으로 싸우지 아니했던 이방

나라들이 연전연승 하는 다윗의 명성만을 전해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써 복을 들고 산이든지 빈이든지 나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제목: 하나님이 대신하여
성경: 시편 18편 45절 찬송가 198장

최잔하여졌다다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뜻으로 다윗의 적들이 전의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앞에서는 그 지혜와 힘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채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상 숭배 자체가 얼마나 무기력하며 어리석은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심을 굳게 믿으며 오늘을 살시다.

제목: 처음부터 영원까지
성경: 시편 18편 46절 찬송가 283장

본 구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본시의 종결 부분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 곧 자존성을 찬양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나의 행동과 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어느쪽인가성
경: 시편 18편 47절 찬송가 327장

보복해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 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복하신다는 말은 곧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그렇지 못한지 자신을 점검해봅시다.

제목: 끊이지 말아야 할 것들
성경: 시편 18편 48-49절 찬송가 44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그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간접적으로 다윗이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 가정, 나라, 열방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엔 깊은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찬송가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근본 사명이 무엇일까?

죄가 관영하는 어두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즉 복음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 타락한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린 게진 등불이 되었고, 정화의 소금은 밖에 버려져 짓밟힘이 되었다. 교회가 빛을 잃으니 세상은 어두워지고, 소금의 역할을 못해내니 세상은 타락하고 썩어만 간다.

교회여!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 함께 죽어갈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자문자답 해 보라! 그대들은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피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교회여 일어서라. 주먹을 불끈 쥐어라. 그리고 포효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초의 야성으로 돌아가 포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이자 마지막 성문법(십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밝히려. 이것이 동물과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자녀들의 표상이며 기본 정신이다. 교회여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려라. 그것만이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송택규 박사
본지 주필
크리스천 영성 대표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5년 1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4 인양광은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2-14 온양중기교회(백현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신교회(김동현 목사)
25-28 담심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2015년 2월
2-5 갈림산기도원(이목란 원장)
9-11 원전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경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송한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불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15년 6월
1-3 전전교회(송일목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 오산리공기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양선 원장)
13-16 김해배달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최정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희목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갈림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 조광수 목사)
1 오산리침례교회(최정숙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7-11 온누리복음화임(이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지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정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환)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기쁨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산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안리선교지방문
7-9 살롬교회(고정민 목사)
14-16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13 한돌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에덴교회(양희목 목사)
24-27 성일교회(이판석 목사)

2016년 2월
1-4 갈림산기도원(이목란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정호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불철축복대심방의 달

2016년 4월
4-6 새광교회(윤주후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1-12 정기노회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산돌교회(김진성 목사)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광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1 한우리교회(윤홍준 목사)
5-18 예복교회 불철부흥성회
23-25 소망교회(강병진 목사)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6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8 사량교회(최용석 목사)
13-17 선교지사역자성대회
27-30 사량제일교회(오만근 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7-23 심야기도대성회(예복교회)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희목 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8월</



인기목, 200여 목회자 초청“섬김과 나눔”잔치 열어

구정, 섬김과 나눔으로 따뜻한 떡국과 가래떡 4kg 선물

인천기독교목회자총연합회(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는 2월 5일(금)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만수5동 소재 뽕엘교회(서초원 목사시무)에서 제103차 구정맞이 목회자 섬김과 나눔을 위한 예배와 축제에 인천지역 개척교회 및 어려운 목회자 200여명을 초청, 떡 나누기 행사를 갖고 훈훈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사무총장 이흥선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서 박경자 목사가 기도를, 김순순 목사의 성경봉독(마 22:37-40절), 영광교회 함시바찬양단의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인기목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조강수 대표회장은 ‘새해 복 많

이 받으세요 올해는 잘 될 겁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사랑은 섬김이며, 우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섬김을 갖는 것이며, 이 섬김의 운동은 꾸준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회장은 섬기고 있는 영광교회에서 매주 목,금 양일간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 밥과 국수, 다과 등을 대접하고 섬김과 나눔의 행사를 하는데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목사인 저를 알아보고 고맙고 감사하다며 손을 잡아주고 인사를 하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회장은 이를 경험으로 인기목총연합회에서도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일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인천기독교목회자총연합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병현 목사, ② 인천성시화를 위하여 조영희 목사, ③ 살기 좋은 인천경제를 위하여 권장석 목사, ④ 목회자 사명과 영성회복을 위하여 이흥희 목사, ⑤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이요한 목사 등이 특별기도에 나섰다. 아울러 목회자의 감사와 인사말씀이 있었고, 강태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황귀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섬김과 나눔에서 정숙

자 목사의 기도, 송태평 목사가 간증집회를, 김성태 목사, 김해자 목사, 김순숙 목사, 강태에 목사, 배정희 목사 등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전국화부의장 이운성 장로가 축사를, 남구정장 전 민주당혁신위원 박우섭 권사가 격려사를, 사랑의 집 고쳐주기대표 지수만집사가 대학생 김주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인천 남구정장 박우섭 권사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쌀을 전달했으며, 강지우 목사 외 70세 이상 된 목회자들과 최호옥 목사, 홍선숙 목사 등이 특별찬양을 한 후 섬김과 나눔의 설립자 박무평 목사의 감사와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날 설립자 박무평 목사는 섬김과 나눔 운동이 103차에 이르기까지 나눔 운동에 협력해 준 일부 동역자들과 기관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자신의 아픔을 회고했다.

한편 인기목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설립자 박 목사를 격려로서 위로하고 이 일은 이제부터 박 목사가 아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서 목회자 섬김과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다짐했다.

인기목 주간으로 연이어 2월 18일은 배정희 목사(믿음교회), 26일 남구정(구정장 박우섭) 대회의실에서 목회자초청 쌀 나눔행사를 갖는다.



2016 설날 큰 잔치 베풀어

월서은행, 노인센터 공동 주최



2016 설날을 맞이하여 월서은행과 노인센터가 공동으로 설 잔치를 베풀었다. 지난 8일(월)오전 11시부터 노인센터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김상호 목사(은혜성로원교회)의 오픈 기도로 행사가 시작 되었고, 박형만(노인센터 이사장), 유재환 (월서은행)의 환영사 그리고 김현명 LA 총영사, 로렌스 한 상공회의소 소장이 각각 축사를 하고 노인센터 소속으로 있는 한국 무용반 등이 부채춤과 장구춤 등으로 참가한 어르신들에게 신나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주관한 단체를 통해 맛있는 점심을 제공 받고 행사를 잘 마쳤다.

미. 헤럴드사 제공



▲기독문협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미주 기독문인협회 2월 정기 예배

최선호 목사 “주님이 바라는 신실한 작가가 되기 바란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기 예배 및 작품 감상회를 가졌다. 2월 5일(금)오전 10시30분 760 S. Westmorland 에 위치해 있는 방동섭 부회장의 집무실에서 거행되었 다 방 목사의 사회로 시작 된 예배에서 정정숙 회장(시인)이 오픈 기도를 했다. 이어서 최선호 목사(시인, 문학평론가)가 설교했다.

최선호 목사는 요한복음 5장2절-8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베데스타 연못이란 히브리 언어로 베데스타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못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 남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치유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께 설명을 하였을 때, 이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최 목사는 “오늘 함

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문인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슴에 안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다. 주님의 바라고 원하는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의 사랑이 담긴 글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훌륭한 작가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태 목사(소설가)의 축도로 끝으로 예배를 마치고 2부에서는 작품 감상 시간이 이어졌다. 방동섭 목사의 작품 ‘식물인간’이란 시가 낭송되었고 이 시에 대한 각자 평론을 하였다.

피종진 목사 2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1(월) 오후 부천 총회연합회(학정 박종두 목사) ☎ 010-7707-0150
장소: 부천 소규모 대강당

1(월) 오후 서울 은평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1(월)~ 3(수) 김포 한빛교회(김선일 목사) ☎ 010-4737-0691
2(화) 오전 계동 도곡산기도원(원장 이종범 목사) ☎(042)841-8513
주최: 기도처유아카데미(원장 정요한 목사)

4(목)~ 6(토) 영광 사랑의교회수양관(고정욱 목사) ☎ 010-9319-0191
7(주)~10(수) 새창원은혜교회(피해 목사) ☎ 010-8540-8642
12(금) 오전 인천총회신학교(학정 민종만 목사) ☎ 010-9282-5673

제196차 해외성회(196th Overseas Assembly)

15(월)~19(금) 일본(JAPAN) 아미바 기적의동산(원장 남덕순 목사) ☎(090)5174-9692
15(월)~19(금) 일본(JAPAN) 쓰루가사리교회(김영열 목사) ☎(090)5174-9692
21(주) 오후 서울 강남구마루교회(정요한 목사) ☎ 010-3917-0616
22(월)~23(화) 인도(India) 콜린신학대학교(이재원 선교사) ☎ 010-3917-0616
24(수) 인도(India) 브리튼교회
25(목) 인도(India) 원주민목회자 실천목회세미나
29(일) 오전 영목회 재경영남장로회(준비위원장 황세환 목사)
장소: 국회헌정회관 ☎ 010-9954-9191
29(일)~3.2(수) 서울 주성령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장성철,
-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부이사장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학생회	토,오후 5:00
수요 예배	오후 7:30	청년회	토,오후 6:00
새벽 예배	새벽 5:00	여전도 구역예배	금,낮 11:00
금요일아예배	밤 9:00	남전도 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00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초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lc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2016년 대한노회 교역자 춘계수련회 개최



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 일정: 2016년 2월 22일(월) ~ 24일(수) 2박 3일
- 장소: 새 예루살렘교회(김정미 목사시무 / 010-5877-0854)
- 주소: 충북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296 (도로명 주소: 양성면 양암로 272)
- 참고: 차량별 문의는 노회서기 박민규 목사(H.P 010-5071-9627)
- 대상: 노회원 부부
- 참가비: 개인별 3만원
- 기타: 복장/휴대품, 간편복, 성경/찬송, 필기구, 세면도구
- 숙소: 충북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627-11 호텔 유엔스피(온유 호텔)

전화: 043-855-8877 오시는 길 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주소: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내손동, 대림프라자 7층) 주사랑교회 (내)
전화: 031-424-7612, 팩스: 031-424-7610